

피트니스 소비자에 대한 탐색적 고찰: 강남과 강북 피트니스 회원 간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Fitness Consumer: Focusing on Established and Outsider Relations of the Body among Fitness Members of Gangnam and Gangbuk

추혜원

영국 레스터 대학교/문화적 생산과 소비 리서치 그룹

Hye-Won Choo(gracechoo@hanmail.net)

요약

이 글은 엘리아스(Elias)와 부르디외(Bourdieu)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의 피트니스 회원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달리 나타나는 피트니스 회원(강남/강북, 프라이빗/퍼블릭 센터) 사이의 권력관계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뷰와 참여관찰 방법을 통해 강남과 강북 피트니스 회원들(강남 12명: 강북 12명)을 대상으로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더(Established-Outsider) 권력관계를 살펴본다. 사회 공간 내에서 참여자의 위치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피트니스 자본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어졌다: 강남 기득권자 그룹(강남E), 강남 아웃사이더 그룹(강남 O), 강북 기득권자 그룹(강북 E), 강북 아웃사이더 그룹(강북 O). 네 그룹 회원들 간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관계는 몸 취향과 하비투스(피트니스센터의 선택, 몸의 과시, 사회적 평가, 근육만들기, 다른 스포츠에의 참여 등)와 문명화 과정(피트니스 매너 및 에티켓)에서 차이를 보였다. 강남과 강북의 피트니스는 단순히 운동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회원들 사이의 사회-문화적 위계를 재생산하고 영속화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피트니스 |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 관계 | 문명화 과정 | 문화 자본 | 재생산 |

Abstract

This article is a socio-cultural research on the fitness members by employing an original synthesis of the work of Elias and Bourdieu.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multidimensional and in-depth analysis of fitness members, by resear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groups with differing economic and cultural capital (e.g. Gangnam and Gangbuk, private and public center). Throug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the established and outsider relations of fitness members in both Gangnam and Gangbuk are examined (Gangnam 12: Gangbuk 12). Participants in social space differentiated by fitness capital and socio-economic positions gather in certain spaces that identify them as members of the same class location: the established body in Gangnam (Gangnam E), the outsider body in Gangnam (Gangnam O), the established body in Gangbuk (Gangbuk E), and the outsider body in Gangbuk (Gangbuk O). The E-O figuration of the body in fitness clubs shows differences in their body tastes and habitus (selecting a fitness centre, body ostentation, social assessment, making muscles, participation in other sports) and civilizing process (fitness manners and etiquette). The fitness centers in Gangnam and Gangbuk were not simply spaces for exercise but symbolic spaces that both recreate and perpetuate socio-cultural hierarchies between members.

■ keyword : | Fitness | Established and Outsider Relations | Civilizing Process | Cultural Capital | Reproduction |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밝힙니다.

접수일자 : 2016년 11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2월 28일

수정일자 : 2016년 12월 19일

교신저자 : 추혜원, e-mail : gracechoo@hanmail.net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대중 소비의 양과 질에 대한 논의는 1997년 후반 IMF 외환 위기와 함께 소비의 양극화 문제로 전환되었다[1]. 부의 양극화는 곧 소비재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남은영(2012)은 이 당시 고소득층과 중산층 계급의 소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본다[2]. 한국 사회에서 강남과 강북 지역에 대한 논의는 소비의 양극화 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강남과 강북은 지리적인 구분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위계적인 구분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의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3].

이 연구는 강남과 강북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몸의 권력관계 및 문화자본을 살펴볼 것이다. 생활체육운동 중 ‘보디빌딩(헬스)’이 2000년 이후 몸짱 열풍으로 순위 내에 등장한 이후 2008년 2순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순위를 차지하며 대중적인 참여 종목으로 자리매김 [걷기, 38.7%, 등산, 22.8%, 보디빌딩(헬스), 11.8% 순] 하고 있을 만큼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4]. 특히, 피트니스센터는 몸의 권력관계, 즉 근육질 몸(fit body)과 관리가 되지 않은 몸(non-fit body)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트니스 장에 들어간 참여자들은 그들 자신의 몸을 자본화되고, 문명화된 몸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의해 정당성(legitimacy)을 유지한다. 피트니스 장 안에서 클럽 및 행위자의 위치는 사회적(social), 문화적(cultural), 체현된(embodied) 자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5]. 따라서 몸의 기득권자 집단은 아웃사이드 집단에 비해 몸 자본이 풍부하며, 이는 아웃사이드 집단에 대한 상징적 폭력을 이끌게 된다.

이 연구는 피트니스 장에서 몸 권력관계의 재생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Elias와 Bourdieu의 이론을 그 틀로 삼는다. Bourdieu는 구조와 행위자의 연구에 공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6], 계급 간 관계를 분리시켜 보았기 때문에 구조 결정론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7][8]. Elias는 행위자를 상호 의존적(interdependent)이며 동

적인(dynamic)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9], 이 두 이론을 결합시킨다면 Bourdieu에 대한 기존 비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Elias와 Bourdieu의 두 이론을 결합해 나온 ‘피트니스 장에서 몸의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드 관계(Established and Outsider relations of the body in the fitness field)’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피트니스를 하나의 문화의 장으로 볼 것이다[5]. Smith Maguire(2008: 5)에 따르면, 피트니스 장은 몸의 의미와 실천을 만들어내는 피트니스 공간, 텍스트, 생산자와 소비자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다. 그리고 이 안에는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드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10-12].

이 연구의 목적은 강남과 강북의 피트니스 장에서 회원들 간 몸의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드 권력관계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살펴보는 이분법적 연구가 아니라 강남, 강북, 강남: 강북을 다양한 수준에서 비교하여 고찰하려고 했던 연구로 주요 논의는 몸의 하비투스스와 취향 그리고 문명화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드 권력관계에 따라 몸 하비투스스와 취향은 어떻게 재생산(생산)되고 있는가? 둘째,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드 권력관계에 따라 몸의 문명화 과정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이 글에 사용된 자료가 2012년에 조사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트니스 소비문화의 일반적 현상을 이해하며 향후 피트니스 콘텐츠 관련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에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가 한국 학계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Elias와 Bourdieu의 이론들의 합성(synthesis)을 통해 피트니스 소비와 재생산 문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피트니스 소비자(회원) 이슈를 피트니스 산업적 차원에 머물지 않았고, 강남과 강북(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달리 분포되어 있는), 몸 하비투스스와 취향 그리고 문명화 과정이라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점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피트니스 선행 연구

피트니스가 시작된 서구 학계는 피트니스를 신체문화의 특정한 형태로 주목해 왔다[5][13-15]. Ginsberg(2000)는 피트니스 산업 내에서 레저,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를 조사했다. Frew and McGillivray(2005)는 심미적이고 신체적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헬스클럽과 몸의 정치학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몸 담론과 피트니스센터라는 공간의 의미 뒤에 놓여진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문화적 현상을 살펴보고 있다. Crossley(2006)의 경우 선행하는 이론적 틀에 맞추어 몸만들기 실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동기에만 주목해 그것이 가진 사회적 함의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하지 못했다[15]. 이러한 문제는 문화 연구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Smith Maguire (2008)는 Bourdieu의 문화적 장을 이론적 배경으로 피트니스 장에서의 몸의 문화적 생산과 소비에 주목하고 근육에 대한 문화적 압력 및 건강과 외모의 문제를 연구해왔다. 그러나 행위자의 권력관계까지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Elias와 Bourdieu 이론들을 결합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2000년대 몸짱 신드롬 이후 한국사회에서 몸에 대한 연구 주제가 다양해졌다. 젠더 관점으로부터 몸 만들기의 역사적 기원[16][17], 페미니즘 관점에서 몸 관리와 젠더시스템이 어떻게 여성의 몸을 정의하는가의 문제[18][19], 소비자본주의 몸의 문제[20-23], 미디어에 재현되는 몸 담론[24][25] 등이다. 오상화 & 나은영(2002)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가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경험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26]. 즉 서구의 몸 이론 소개, 경험적 연구 없이 이론적 수준의 논의, 변인 중심의 양적 분석 방법만으로 전체적인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몸 만들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관계

Elias & Scotson(1994)는 1950년대 영국 레스터 근처 윈스터 파르바 지역의 1구역(중산층), 2구역(노동자), 3구역(노동자)을 연구하며, 기득권자로서 1, 2구역과 아웃사이더로서 3구역 간 권력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같은 노동자 계급인 2구역과 3구역에서 기득권자-아웃사이더(E-O) 권력관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그들의 연구는 이 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회원들은 피트니스센터에서 서로종속되어 있고, 거기에는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회원에 대한 소문은 아웃사이더 이미지로 전달되고, 아웃사이더 회원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의 사회적-동학(socio-dynamics of stigmatization, 1994, p. xix)은 ‘우리We’라는 이미지와 ‘그들They’라는 이미지로 재구성될 것이다. 셋째, 높은 수준의 감정 통제를 보이는 문명화 과정(civilizing process)이 있을 것이다 (Elias & Scotson, 1994, p. 153)라는 점이다[10].

이 이론을 바탕으로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관계 이론은 스포츠 및 피트니스 분야에서 다양한 권력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Maguire and Mansfield, 1998 에어로빅; Mansfield, 2005 피트니스; Velija, 2011 크리켓[27]). 이 중 피트니스와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Maguire와 Mansfield(1998)는 에어로빅 댄스 스튜디오에서 여성들의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권력관계, 젠더,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다. 이 공간 안에서 여성들의 몸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며 그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대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이후 Mansfield(2005)는 피트니스 장에서 여성들의 몸 권력을 페미니즘과 결합해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기존의 Elias 이론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두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피트니스 장에서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권력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기득권자-아웃사이더라는 결합태를 형성해 상호 영향을 주며 권력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강남과 강북의 피트니스 소비자

의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자료 설명

여가사회학에서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변인 중심의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며, 행위자의 관점에서 여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28][29]. 특히 피트니스장에서 회원에 대한 인터뷰와 참여 관찰이라는 방법의 유용성은 선행 연구에서 보인다[5][12].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강남과 강북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어떻게 기득권자-아웃사이더(E-O) 관계를 형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 12명과 강북 12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참여 관찰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먼저 기득권자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강남에 있는 프라이빗 멤버십 피트니스 클럽과 상대적으로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강북에 있는 퍼블릭 클럽을 선정했다. 전자의 경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상류층들 중심이고, 후자의 경우 중산층(이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각 센터에서 회원들을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로 구분했다. Elias and Scotson (1994)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몸의 기득권자 아웃사이더 관계에 있어 가십과 낙인화의 네트워크를 따라가려고 했다. 관찰은 집단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게다가 기득권자들의 질서에 관한 집단정체성의 이슈와 아웃사이더 집단의 내면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개입하기(involvement)와 거리두기(detachment)의 원칙을 사용했다[30].

피트니스센터 안에서 누가 기득권자이고 아웃사이더 그룹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니저와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 강남 및 강북 클럽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인터뷰할 회원 표집은 해당 센터의 매니저와 인터뷰한 회원들의 도움으로 계속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대부분 인터뷰 대상자들의 사무실이나 근처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강남과 강북 그룹 회원들과 인터뷰와 참여관찰은 그

들이 사회적 공간인 피트니스센터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했다(강남 12명: 강북 12명,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표 2] 참조). 이와 함께 각 센터의 매니저(김 모 씨, 강 모 씨) 및 트레이너들(Bea, Park, Young, Kim)의 인터뷰도 포함했다. 인터뷰와 참여관찰은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으며, 각각의 피트니스센터에서 하루 3~4시간씩 참여관찰을 병행했다.

수집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강남과 강북 회원 간 기득권자-아웃사이더(E-O) 권력관계를 드러낼 범주를 찾기 위해 분석을 했다. 해당 범주 안에서 인터뷰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 후, 내용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다시 배치하는 작업을 했다. 이러한 과정은 동료들(지도교수들 포함)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현장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31]. 본 연구는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동의를 구한 후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인터뷰를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었으며,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읽고 확인했다. 응답자의 신분 및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했으며, 이를 위해 참여자 이름 및 관련 내용을 모두 가명으로 바꾸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대상자 분류

참여 대상자들의 피트니스 하비투스(몸 모양, 피트니스 지식, 기술) 및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4그룹으로 구분했다. Bourdieu의 사회 공간 모델(social space model, 1993)에 따라 사회 공간 내에서 참여자의 위치는 그들의 직업 및 경제적 상태와 피트니스 자본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었다[32]: 강남의 기득권자 그룹(강남 E), 강남의 아웃사이더 그룹(강남 O), 강북의 기득권자 그룹(강북 E), 강북의 아웃사이더 그룹(강북 O).

강남 E그룹은 부르주아지(Mr. C, Mr. E, Mr. A), 그의 아내(Mrs. B), 그리고 자녀(Miss. H); 전문직 종사자(Mr. D, Miss. I, Miss. F)가 포함된다. 강남 O그룹은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J, 의사 G)뿐만 아니라 CEO(Mrs. K)와 그들의 자녀(Miss. I)가 포함된다. 강남 피트니스 클럽 회원들은 강남 지역에 거주지와 직장이 있으며,

표 1. 강남 회원

순서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결혼	학력	수입 (천원)	총기간	현재	주 (시간)	PT 유무	스포츠
1	A	54	M	CEO	기혼	석사	500,000	9년	8년	2	과거	골프
2	B	62	F	주부	기혼	학사	300,000	30년	8년	3	과거 한달 12번	골프
3	C	49	M	CEO	기혼	석사	240,000	30년	8년	3~4	과거	골프, 격투기
4	D	45	M	전문직	기혼	석사	-	20년	8년	3	과거 한달12번	골프
5	E	42	M	CEO	기혼	MBA	120,000	20년	6년	3	과거	골프, 테니스
6	F	32	F	대학강사	미혼	석사	-	10년	4년	3~4	현재 한달15번	수영
7	G	39	F	의사	기혼	박사	250,000	6년	4년	3	과거	
8	H	27	F	사무직	미혼	학사	36,000	8년	2년	3	현재 한달8번	발레
9	I	40	F	이사	미혼	박사	100,000	25년	1년	3	과거	마라톤
10	J	45	M	변호사	기혼	석사	-	3년	9개월	1	과거	등산
11	K	48	F	CEO	기혼	석사	84,000	6개월	6개월	3	현재	골프, 조깅
12	L	22	F	인턴	미혼	학사	15,000	5년	3개월	5	현재 한달12번	

표 2. 강북 회원

순서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결혼	학력	수입 (천원)	총기간	현재	주 (시간)	PT유무	스포츠
13	M	65	M	상업	기혼	고졸	480,000	15년	8년	5	과거	골프
14	N	37	M	기자	기혼	대졸	100,000	10년	8년	3	과거	골프
15	O	55	F	사무직	기혼	고졸	55,000	12년	5년	5	현재	
16	P	55	F	사무직	기혼	고졸	55,000	5년	5년	3-4	-	
17	Q	58	M	선임연구원	기혼	박사	120,000	5년	3년	2	-	마라톤
18	R	45	F	학원장	기혼	석사	150,000	7년	3년	4-5	과거	골프
19	S	46	F	항공사 매니저	이혼	대졸	80,000	5년	2년	3	과거	수영, 스키
20	T	36	M	사무직 (과장)	기혼	석사	60,000	3년	1년	3	-	골프, 야구, 사이클
21	U	43	M	배우	기혼	대졸	-	20년	1년	7	과거	골프
22	V	41	F	사무직	기혼	고졸	30,000	2년	7개월	3	현재	수영
23	W	25	F	사무직	미혼	고졸	50,000	2년	4개월	3	-	
24	X	43	F	웹디자이너	기혼	대졸	35,000	3년	3개월	3	-	수영

가격에 상관없이 멤버십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강북 E그룹 회원에는 배우, 신문사 기자, 항공사 매니저가 포함된다. 그들은 20세 이후부터 그들의 몸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육질 몸을 가지고 있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강북O 그룹은 자영업(Mr. M, Mrs. R)과 사무직 종사자(Mrs. O, Mrs. P, Mrs. Q, Mr. T, Mrs. V, Miss. W)이 속한다. 사무직 종사자에게 자기계발은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그들은 유행하는 운동을 따라 하며 지속적으로 외모 가꾸기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된 네 그룹들의 몸 하비투스과 취향 그리고 문명화 과정을 바탕으로 기독교자-아웃사이더 재생산 문제를 살펴보았다.

IV. 주요 결과

1. 몸 하비투스과 취향

호텔 피트니스 멤버십은 사회계층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진다. 강남 E 회원들은 오랫동안 피트니스 멤버십을 보유해 오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피트니스는 건강과 외모를 위한 일상적인 문화였다. 이들은 다른 그룹 회원들과는 달리 오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되는 피트니스 자본과 하비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 멤버십 구입 및 가족 구성원 참여 등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피트니스 문화를 세대 간에 전수를 하고 있었다. 반면에 강남 O 회원들은 E 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텔 피트니스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멤버십은 사회적 성공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과시적 성격이 강했다. 김 모 매니저는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요. ‘나 운동하고 있어. 나 지금 말 길게 못해. 잠시 후에 나 갈 거야.’

김 모 매니저에 따르면 어떤 회원들은 자신들이 호텔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싶어 한다고 했다. 현대 사회에서 몸 관리의 성공의 코드이므로, 가치 있는 신체자

본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기관리를 뽐내는 이유는 부지런함 및 신뢰가 가져오는 상징적 성공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호텔 멤버십이라는 상징적 자본을 얻은 O 회원들은 피트니스 클럽을 과시의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강남 E 그룹과 다르게, 그들에게 피트니스 클럽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강북 E 그룹은 피트니스센터를 자신들의 몸을 퍼레이드하는 행위의 장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 그룹 회원들은 그들의 몸을 타인들에게 전시하는 것에 의해 다른 회원들로부터 그들 자신을 차별화하고자 했다. 강북헬스클럽의 강 모 매니저는 그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런 고객들은 트레이너나 다른 회원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길 원하죠. 주목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도달한 멋진 몸을 가진 회원들은 센터를 자신들의 과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센터가 과시의 공간이 되는 이유는 Shilling(2012)이 언급한 바와 같이 몸이 신체자본의 원천이기 때문이다[33]. 따라서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몸을 가꾸고 다른 사람들의 몸과 비교·평가한다. 그러한 구분은 과시의 형태로 나타났다. 강북 E 회원들은 호텔부터 퍼블릭까지 다양한 센터에서 운동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몸 만들기에 있어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들의 몸을 증거로 제시했다.

회사에서 제공된 자기계발 비용으로 헬스클럽에 등록한 강북 O 회원들은 그들의 저렴한 멤버십을 하나의 미덕으로 간주했다(돈을 들이지 않고 운동). 강북 E와 강북 O 회원들은 피트니스 관련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다른 회원들에 대해 부러움과 같은 질투심을 보이면서도 낭비한다고 표현했다.

강남 E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근육질 몸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들은 ‘아름답게 보이기’ 또는 ‘젊게 보이기’에 대해 지나치게 강박관념을 가지기 보다는 그들 나이에 어울리는 건강한 몸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

었다. 강남 E 회원들은 몸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지 않는 반면 강북 E 회원들은 ‘20대가 내 몸을 부러워한다(배우 U)’, ‘나는 완전히 근육질 몸이에요 (Ms. S)’라며 그들의 몸에 대한 나르시시즘을 표현한다. 강북 E 그룹의 근육질 몸매는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상징적 자본이 되고 있었다. 배우 U는 왜 그가 몸을 만들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 직업은 불안정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사랑할 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가진 게 몸뿐이에요. 내 몸은 돈이고, 나는 내 자신을 팔아야 합니다. 내가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배우 U는 “저는 가진 게 몸뿐이에요”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반 사람들이 자동차 및 의류, 주택과 같은 경제적 자본을 가지고 타인들을 차별화한다면, 그는 TV 화면을 통해 주목받을 수 있는 그의 근육질 몸을 통해 다른 배우들과 차별화하고 있었다. 그의 가치 있는 신체자본은 곧 상징적 자본이 되었다. Ms. S는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며, 자신의 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지 설명했다. 그녀에게 피트니스는 그녀의 이미지와 맞는 몸 형태(shape)를 꾸준히 만드는 것이었다. 강북 E 회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몸 만들기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몸에 대해 나르시시스트적인 표현, 그리고 피트니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근육질 몸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적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자본을 보상하는 것이었다.

강남 O 회원들은 지나치게 똥똥하거나 날씬하지도 않은, 보통 사이즈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비만과 노화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 중 여성 회원들의 경우 체중 수치에 민감했으며, 그들의 목표는 체중 유지 및 감량이었다(Mrs. O, Mrs. P, Mrs. R, Mrs. V, Miss. W, Mrs. X). 그들은 운동과 다이어트 보조제를 섭취하면서 그들의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반면, 근육 만들기에 관심이 없었다. 강북 E 회원과 달리, 강북 O 회원들에게 몸은 고통

을 감내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킬 만큼 중요하게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의 몸은 아웃사이드로 평가되기도 했다. 강북 O 그룹의 Mrs. X의 경험을 공유해보자:

제가 바지를 사러 갔는데, 점원이 그 샵에는 제가 입을 만한 사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허리 29가 가장 큰 거라고.

Mrs X는 바지 구입과 관련한 그녀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사회생활에서 그녀는 외모 때문에 이보다 더한 불이익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외모 지상주의(Lookism)와 연관된다. 강북 O 회원들은 옷 사이즈에 대한 불안감, 그들 몸에 대한 가십, 이성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평가에서 몸 관리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현재 한국인의 몸은 서구 지향적인 가치의 과도한 상승과 함께 무차별적인 자본의 논리에 의해 어느 때보다 고통 받고 있다. 외모 지상주의는 인간의 몸을 상업화와 물질주의를 향해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직 종사자인 그들은 부르주아지 계급과 달리,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업무 기준은 그들로 하여금 운동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 Mrs. V는 회사원으로서 그녀가 다이어트 계획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한다:

전 직장 마치고 또는 점심시간에 운동하러 가요. 부장님은 제게 사회적이기 못하다고 종종 말해요. 전 직원들이랑 점심 먹고 회식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편해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가끔 외롭기도 해요.

강남 E 그룹에게 있어 피트니스는 몸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동이었다. 그들은 피트니스와 함께 다른 운동들을 같이 하고 있었다(골프, 테니스, 등산, 발레 등). 그들은 근육의 조화로운 개발에 초점을 맞추며 피트니스 그 자체를 즐겼다. 반면에 강북 E 회원들의 목표는 근육질 몸매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근육이 조화롭게 형성되는지에 상관없이, 그들은 근육 키우기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몸 그 자체에 강박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몸 만들기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그들의 사회생활의 범위는 제한이 따랐다. 강남 O 회원들은 운동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건강과 외모를 위해 운동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한계를 능가하는 심한 강도의 운동은 시도하지 않았다. 강남 O 회원인 Mrs. K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전 러닝머신과 자전거 외에는 잘 안 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해야겠죠. 반 정도는 재밌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우나에서 쉬어요.

Mrs. K는 피트니스센터에서 몸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즐기지 못했다. 그녀처럼 강남 O 회원들 대부분이 운동을 통해 순수한 재미나 즐거움을 만끽하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다. 변호사 J 또한 피트니스센터는 유익한 공간이지만, 그에게는 시간을 내서 가야하는 힘든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이전에 세운 피트니스 계획에서 늘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강남O 회원들은 사회적 유대 관계 형성 및 성공을 위해 골프를 배웠다. 그러나 그들의 골프 자체에 대한 흥미는 높지 않았다. 강남 O와 강북 O그룹 사이에 공통점은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트니스센터는 지속적으로 회원들을 재등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피트니스 공간은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하에 강제성의 강도를 가지고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남 E 회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운동을 배우고 싶을 때 전문가 코치를 찾겠다는 점이다(Mr. A, Mr. C, Mr. D, Mr. E, Miss. F, Miss. H, Miss. I).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은 자신에게 맞는 코치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전문가로부터 운동 방법을 정확히 배우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들은 퍼스널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퍼스널 트레이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인생 운동 프로그램이었다. 강남 E 회원들은 그들의 연령, 물리적 한계, 그리고 이상적인

몸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의 단계에서 필요한 PT를 고안하기도 했다. Mr. D와 Mr. E는 퍼스널 트레이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왜 프로페셔널들이 코치를 필요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지요. 그들은 운동을 정확히 해야 해요. 어떤 머신과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Mr. D, 강남 E).

제 몸은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가죠. 저는 웨이트 프로그램에서 변화가 필요하죠. 20대 초반 프로그램은 적용될 수 없죠(Mr. E, 강남 E).

이와 함께 피트니스에 있어 그들의 광범위하고 오랜 경험 덕분에, 그들은 누가 프로페셔널 트레이너인지를 식별할 수 있었다. 퍼스널 트레이닝은 강남 E 회원들에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처럼). 우수한 코치를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트레이너들과 어떻게 운동하는지 계속 이야기한다:

저희는 같이 운동해요. 그는 이미 제 몸의 조건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제게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Mr. D, 강남E).

저는 제가 PT를 정해요. 만약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으면, 유능한 PT들은 한 1~2개월 안에 마스터하게 해주죠. 저는 그것만 따라 하면 되고. 저는 한두 달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 비용은 아깝지 않죠(Mr. E, 강남E).

Mr. D와 Mr. E는 피트니스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웃사이더 회원들과 달리 PT 레슨과 연관된 피트니스 문화자본을 오랫동안 축적해 오고 있었다. 강남 E와 강북 E그룹 사이의 공통점은 두 그룹 모두 퍼스널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강남 O그룹은 오랫동안 PT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피트니스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었다. PT가 효과적인 운동인 것을 알지만, 직업의 특성상 몸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었다. 퍼스널 트레이닝 경험이 많은 강남O 그룹

과 달리, 강북 O그룹은 PT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었다. Mrs P 와 Mr. T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자:

전 2번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PT)을 받았어요. PT는 어렵고 저한테 맞지 않아요. 성격이 급해서, 느릿느릿한 동작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요(Mrs. P, 강북O).

PT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굳이 레슨을 안 받아도 다른 회원들이 배우는 것 보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모르면 헬스장 트레이너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PT들은 저의 이런 질문을 싫어하죠. 여성 회원에게는 아주 친절한데... 그들은 겸손하지 않아요(Mr. T, 강북 O).

Mrs. P 와 Mr. T는 PT가 자신과 맞지 않고 배울 필요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북 O 회원들은 다른 그룹의 회원들보다 헬스클럽을 자주 이용했지만, 별도로 PT를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있어 꺼려했다. PT 비용은 그들이 지불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그들은 PT에 대한 아주 짧은 경험이 있을 뿐인데, 대부분의 강북 O 회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Mr. T는 ‘여성 회원들에게만 친절하다’, ‘겸손하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트레이너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PT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기득권자 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다.

강북 O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운동비용에 민감했고, 비싼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 따라서 그들은 산책이나 그들이 다니는 회사나 또는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야구 및 축구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했다. 인터뷰 결과 그들의 스포츠 종목은 다양하지 않았다(Mr. Q 와 Mr. T). 규모가 큰 퍼블릭 헬스센터는 골프 연습장 및 시뮬레이터(simulator)를 제공한다. 강북 O 회원들은 이곳을 이용해 골프의 기본을 배우고 있었다. 화이트칼라층이 골프를 배우는 목적은 회사 임원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골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만일 남성들이 승진을 원하면, 그들은 상사와의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골프를 같이

쳐야 한다는 것이다. 강북 O 회원인 Mr. T는 그가 골프를 배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사와 친해지려면 골프는 필수죠. 상사들이 문쵸, 골프 치냐고. 몇 타냐고.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당황했어요. 그때 제 동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3년 이상 쳤고, 언더 80이라고’ 제 상사가 동료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헬스클럽 골프연습장에 등록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이전에 상류층만 향유했던 특정 스포츠는 대중화의 과정을 맞이한다. 퍼블릭 헬스센터의 골프 연습장은 중산층이 골프를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등장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산층이 골프를 배울 수 있는 채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어떻게 골프를 배우는가에 따라 상류층과 중산층(이하) 사이에는 골프의 지식, 기술, 경험 그리고 하비투스에 중요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골프의 기득권자와 달리 아웃사이더 골퍼들에게 배우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였다. 즉‘개인적인 취향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계급 내에서 형성된 하비투스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차별화되며 결국 기득권의 유지와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p.167)’[34].

2. 문명화 과정

호텔 피트니스 클럽은 그래도 달라야죠. 돈만 있다고 회원을 받으면 안 되죠. 그들은 이기적이고 겸손하지 않아요.

Mr. A는 새로 온 회원에 대해 ‘이기적’이고 ‘겸손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Mr. A과 같이, 다른 강남E 회원들(Mrs. B, Mr. C, Mr. E)도 그러한 아웃사이더를 센터에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들은 호텔 피트니스와 일반 클럽 사이의 차이가 회원의 기준을 얼마나 엄격히 준수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김 모 매니저는 회원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들은 한곳에 시선을 두고 겸손하게 걸어요.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고, 시간도 적절하게 배분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간섭하지도 않아요. 가장 큰 차이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내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웃거나 유머스럽게 말하며 그들의 감정을 극복합니다. 반면에, 어떤 회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죠.

김 모 매니저는 강남 E 회원들이 그들의 행동과 감정을 잘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그는 이와 반대되는 아웃사이더의 특징을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득권자 그룹의 겸손한 태도는 자기관리, 자기통제, 그리고 자기겸손과 같은 지배 계급의 가치를 표현한다. Bourdieu와 Elias는 그들의 저서에서 몸에 대한 통제와 하비투스에 대해 설명해 왔다[6][35]. 기득권자의 겸손한 태도는 피트니스 센터에서의 장시간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사회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Featherstone(1991)에 따르면 몸의 내면(내적 상태)을 관리하는 주요 목적은 물리적 동작, 통제, 그리고 외모와 관련된 외부로 드러나는 몸의 개선이라고 본다[36]. 겸손하고 절제된 태도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경험들, 그들의 행동에 스며든 클럽 하비투스를 통해서 획득된다. 따라서 피트니스센터에서 안정된 방식으로 운동하고 결점 없는 동작을 보이는 기득권자들의 겸손하고 절제된 매너는 그들이 어떠한 계급에 속하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문화적 자본을 과시하지 않고 다른 회원들로부터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있다.

관리되지 못한 아웃사이더 몸에 대한 가십은 아웃사이더 회원들을 더욱 낮은 위치로 낙인찍는다. 아웃사이더 회원들은 피트니스 클럽 내에서는 가치 없는 사람들로 간주되기도 한다. 몸의 기득권자인 회원들과 트레이너들은 아웃사이더 회원들이 자기통제와 절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Ms. S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관리가 전혀 안 된 회원들은 솔직히 다 비슷해 보여요. 머신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은 늘 새로운 사람처럼 불안해 보여요. 무엇을 해야 할지 주

저하죠(Ms. S, 강북E).

그녀의 인터뷰 내용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된’과 같이 사람들의 몸 사이즈와 모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근육질 몸의 기득권자적 이미지는 홀륭하고 뛰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근육질 몸은 상대적으로 문명화되어 보인다. 몸의 기득권자에게는 외양, 운동, 다이어트 실천에 있어 ‘높은 정도의 자기 규제’와 ‘좀 더 확고히 규제된 행동들’이 보인다(Elias & Scotson, 1994, p. 153). 이와 관련해 어떤 트레이너들(Beon, Park, Young, Kim)은 아웃사이더 회원들은 규칙(예: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들은 레슨 시간에 늦게 오면서 1시간을 다 채워서 해달라는 등 요구를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트레이너들은 회원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들의 몸을 만드는가를 바탕으로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 회원들 간에 몸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강북 O 여성 회원들의 대부분은 운동이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 쉽게 포기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이며,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에게 운동의 목표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강남E 그룹과 강북 E 그룹의 중년 여성들은 아웃사이더 회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었다.

강북 E 회원들은 전형적인 ‘아저씨’ 그룹에 대해 언급했다: 다른 사람들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간섭하고, 신체적 현상(예: 방귀, 트림)을 조절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낸다. 이러한 아웃사이더 회원들은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강북 E 회원 중 Mr. N과 Ms. S는 아웃사이더 회원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습관적으로 덤벨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를 내면서 하고, 정말 같이 있으면 괴롭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요(Mr. N).

어떤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괴로워요(Ms. S).

그들의 설명처럼, 피트니스 공간에는 전형적인 아웃사이더 특징을 보이는 회원들이 있다. 덧붙이면, 그들은 오랫동안 헬스 기구와 도구를 차지하며, 그것을 사용한 후에도 정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다(Mrs. B, Mr. C, Mr. E, Miss. F). 또한 운동을 하다가도 그들은 전화를 받으며 크게 떠들거나(Mr. A, Mr. D, Mr. N, Ms. S, 배우 U), 기구에 앉아서 통화를 지속한다는 것이다(Mr. N, Ms. S). 기득권자들은 아웃사이더들은 상대적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형적인 아저씨와 ‘새로운’ 스타일의 아저씨의 상징적 경계의 문제는 피트니스 장에서도 발견되어진다. 이러한 낙인의 과정에는 항상 기득권자의 눈과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근육질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몸의 지배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몸의 기득권자들(운동을 제대로 배워 근육질 몸을 가진 사람들)은 집단 카리스마(group charisma)를 보여준다. Elias & Scotson(1994)은 높은 수준의 감정 통제, 상호 통제, 동조성은 그룹 카리스마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기득권자 여성 회원들은 아웃사이더 몸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Miss. H 와 Miss. I(강남 E그룹)는 비만인 여성은 자기절제가 부족하고 의지가 박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웃사이더 몸매를 가진 사람들은 집단 불명예(group disgrace) 순간을 경험하고 이는 낮은 자존감, 수치심, 그리고 낙담 상태로 이끌게 된다. 강북 O 회원 중 Miss. W는 멋진 몸매를 가진 여성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날씬한 여성들을 보면 부러워요. 헬스 기구도 잘 다루고. 특히 스텝퍼에서 운동할 때 지지지도 않아요. 전 정말 3분을 못해요. 정말 부끄럽죠. 제가 너무 뚱뚱한 거 같아요.

그녀는 ‘부러워요’, ‘못해요’, ‘부끄러워요’라는 단어를 통해 기득권자에 대한 그녀의 몸의 위치를 내보였다. 이처럼 몸의 불평등한 권력은 전자에게 집단 카리스마를 후자에게 집단 불명예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몸의 아웃사이더인 Miss. W는 ‘제가 너무 뚱뚱한 거 같아요’라며 자신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강남과 강북의 피트니스 회원의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관계를 조사하였다. 강남과 강북의 피트니스는 단순히 운동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회원들 사이의 사회-문화적 위계를 재생산하고 영속화하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피트니스 참여자의 위계적 계급의 특성은 그들이 어느 사회 공간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회원들은 그들의 피트니스 자본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1) 강남 기득권자 그룹(강남 E) (2) 강남 아웃사이더 그룹(강남 O) (3) 강북 기득권자 그룹(강북 E) (4) 강북 아웃사이더 그룹(강북 O).

강남 E그룹은 주로 부르주아지 계급으로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피트니스를 경험해 오고 있었으며, 세대에 전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트니스 문화자본이 풍부했다. 강남 O그룹은 주로 전문직 종사자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센터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바쁜 업무로 인해 피트니스 그 자체에 많은 시간을 내기는 힘들었다. 그들에게 피트니스 멤버십은 성공의 상징이자 과시적 성격이 강했다. 강북 E그룹에게 근육질 몸은 사회적 성공 및 부를 보장할 수 있는 상징적 자본이었다. 그들에게 몸은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은 근육 만들기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음식 조절 및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이었다. 강북 O그룹의 경우 자영업자와 사무직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만들기보다는 체중 유지를 목표로 운동하고 있었다. 이 중 사무직 종사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기계발 비용으로 센터에 등록하고 있었으며 PT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그룹이었다. 결과적으로 네 그룹 회원들 간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관계는 몸 취향과 하비투스(피트니스센터의 선택, 근육 만들기, 다른 스포츠에의 참여 등)와 문명화 과정(피트니스 매너 및 에티켓)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요 결과 및 함의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 강남과 강북 피트니스 회원 간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권력관계

피트니스센터	몸의 권력관계	몸 취향과 하비투스	문명화 과정
강남 상류층 호텔/전문적 클럽 고가의 멤버십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가 계급 - 프라이빗 멤버십 보유의 용이성 - 피트니스 문화의 세대 간 전수 및 사고 모임 - 풍부한 피트니스 문화자본 보유 - 근육 만들기 지식 및 방법 보유 -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화된 몸(civilized bodies) - 클럽 피트니스 매너 및 에티켓 보유 - 자기관리 및 절제 - 그룹 카리스마 - 아웃사이더 몸에 대한 가십 만들기: 낙인화 과정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 종사자 및 일부 자본가 계급 - 프라이빗 멤버십: 성공의 상징, 과시적 성격 - 운동의 목적 : 근육 만들기 보다는 건강 유지 - 상대적으로 바쁜 업무 - 사회자본의 축적을 위해 골프를 참여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덜 문명화된 몸(less civilized bodies) - 그룹 수치심 - 아웃사이더 몸 내면화
강북 중산층 보편적/대중 클럽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 신문사 기자, 항공사 매니저 - 몸에 대한 나르시시즘 - 몸은 상징적 자본 - 적극적인 근육 만들기(음식 조절, 운동) - 다른 스포츠 활동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명화된 몸(civilized bodies) - 자기관리 및 절제 - 그룹 카리스마 - 아웃사이더 몸에 대한 가십 만들기: 낙인화 과정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사무직 종사자 - 자기계발의 중요성: 경쟁과 생존 비용(직장 지원) - 노화 및 비만 방지(여성: 체중 조절) - PT 이용에 소극적인 집단 - 돈이 들지 않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덜 문명화된 몸(less civilized bodies) - 그룹 수치심 - 아웃사이더 몸 내면화

피트니스장에서 기득권자 그룹의 문명화는 피트니스 문화를 둘러싼 정당성(legitimacy)의 게이트키퍼로 작용한다. Bourdieu(1984)에 따르면 고급 문화의 정당성은 쉽게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투자를 통해서 문화적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트니스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와 규칙은 수없이 많으며, 수많은 상황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매너 및 에티켓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교육, 시간, 돈은 이러한 문화적 규칙들을 배우는 데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보여졌듯이, 강남의 기득권자 회원들은 가족으로부터 세대 간에 전수된 자본을 통해 피트니스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부모에 의해 피트니스 매너 교육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자본이 부모와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는 Bourdieu의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피트니스장에서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권력관계는 재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피트니스의 장에서 회원 간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권력관계 및 문화자본의 재생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사회자본까지 조사하지 못했다. 한국에서 사회자본은 서구에서 공적인 성격의 사회자본[37]의 개념과 달리 개인적 성공의 기반으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다[38][39].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족과 직장, 지역이라는 요인을 고려해 회원들의 네트워크 문제를 살펴본다면 좀 더 풍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서울 이외 지역(예: 위성도시와 신도시)의 피트니스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향후 연구가 수행된다면 피트니스 사회-문화적 맥락 및 지역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Elias(1987)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자는 개입하기와 거리두기 방법에서 중립을 지키기가 힘들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이 원칙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이론, 방법론, 결과물의 제시

에서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젠더, 연령, 계급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한 논의는 균형을 이루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 연령, 계급, 인종과 같은 사회적 경계보다는 몸의 기득권자-아웃사이더 관계라는 상징적 경계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기존의 사회적인 경계 수준에서의 접근에서 벗어나 상징적인 경계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지금까지 단절된 현상에서 벗어나 또 다른 시각에서 사회문화적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임석희, 이용우, "사회적 양극화와 공간적 특성: 서울의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pp.270-279, 2002.
- [2] 남은영,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위험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사회학회 2012 후기 사회학대회, pp.67-80, 2012.
- [3] 김수정, 최새별, "문화 강좌를 통해 본 서울 강남과 강북의 문화취향: 백화점 문화센터와 주민센터의 문화 강좌를 중심으로," 문화경제 연구, 제15권, 제1호, pp.3-29, 2012.
- [4]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 p.134, 2014.
- [5] J. Smith Maguire, *Fit for Consumption: Sociology and the Business of Fitness*, London: Routledge, 2008.
- [6] P.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Trans. R. N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7] R. Jenkins, Pierre Bourdieu. Rev. ed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1992).
- [8] W. Chan and J. Goldthorpe,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Cultural Consumption: Some Policy Implications of a Research Project," *Cultural Trends*, Vol.16, No.4, pp.373-84, 2007.
- [9] N. Elias, *What is Sociology?*, London: Hutchinson, 1978.
- [10] N. Elias and J. Scotson, *The Established and the Outsiders: a Sociological Enquiry into Community Problems*, London: Sage, 1994.
- [11] J. Maguire and L. Mansfield, "No-Body's Perfect: Women, Aerobics, and the Body Beautiful," *Sociology of Sport Journal*, Vol.15, No.2, pp.109-37, 1998.
- [12] L. Mansfield, *Gender, Power and Identities in the Fitness Gym towards a Sociology of the Exercise Body-Beautiful Complex*. Thesis (Ph.D), Loughborough University, 2005.
- [13] L. Ginsberg, "The Hard Work of Working Out: Defining Leisure, Health and Beauty in a Japanese Fitness Club,"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Vol.34, No.2, pp.260-81, 2000.
- [14] M. Frew and D. McGillivray, "Health Clubs and Body Politics: Aesthetics and the Quest for Physical Capital," *Leisure Studies*, Vol.24, No.2, pp.161-75, 2005.
- [15] N. Crossley, "In the gym: motives, meaning and moral careers," *Body and Society*, Vol.12, No.3, pp.23-50, 2006.
- [16] 이영아, *예쁜 여자 만들기: 미인 강박의 문화사*, 푸른역사, 2011.
- [17] 박노자, *썩썩한 남자 만들기: 한국의 이상적 남성성의 역사를 파헤치다*, 푸른역사, 2009.
- [18] 임인숙, "다이어트의 사회문화적 환경," *한국사회학*, 제38권, 제2호, pp.165-187, 2004.
- [19] 송유진, "외모 지향의 연령 파괴: 중·노년 여성들의 외모 가꾸기," *한국사회*, 제13권, 제2호, pp.83-111, 2012.
- [20] 임인숙, "외모 차별 사회의 외모 불안감과 노화 불안감," *한국사회학*, 제49권, 제4호, pp.199-233, 2015.
- [21] 임인숙, "몸 자아의 소비문화적 연결방식과 불안정성," *한국사회*, 제8집, 제1호, pp.95-119, 2007.
- [22] 임인숙, "한국 대중가요의 외모 차별주의: 미인

찬가에서 육체 찬미와 조롱으로,” 한국사회학, 제41권, 제2호, pp.240-70, 2007.

[23] 임재구, 이택상, “소비사회에서 몸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 활동에 관한 연구,” 제29권, pp.139-151, 2007.

[24] 남상우, 고은하, “다이어트 영웅의 탄생: 리얼리티 쇼의 비만 담론과 문화 효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4권, 제2호, pp.69-97, 2011.

[25] 임인숙, 김민주, “한국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비만 낙인 재생산,” 한국여성학, 제28권, 제4호, pp.1-38, 2012.

[26] 오상화, 나은영, “대중매체 소비가 여대생의 신체 변형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개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제3권, 제2호, pp.141-60, 2002.

[27] P. Velija, “Nice Girls Don’t Play Cricket: the Theory of Established and Outsider Relations and Perceptions of Sexuality and Class amongst Female Cricketers,” Sport in Society, Vol.14, No.1, pp.81-96, 2011.

[28] 김이정, 송강영, “교양댄스스포츠 참여 대학생의 스트레스해소 및 학업성적변화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98-408, 2013.

[29] 김이정, “독신여성들의 여가체험 이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 pp.359-365, 2009.

[30] N. Elias, *Involvement and Detachment*, Oxford: Blackwell, 1987.

[31]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아르케, 2013.

[32] P. Bourdieu,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Essays on Art and Literature*, in R. Johnson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33] C. Shilling, *The Body and Social Theory*, 3rded. London: Sage, 2012.

[34] 박기웅, 조정연, “현대소비사회에서의 취향과 유행의 상관성과 대중문화의 역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 pp.167-175, 2010.

[35] N. Elias, *The Civilizing Process*. Trans. E. Jephcott, Oxford: Basil Blackwell, 1994(1939).

[36] M. Featherstone,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in M. Featherstone, M. Hepworth, and B. Turner (eds.), *The Body: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pp.170-96, 1991.

[37] G. Jarvie, “Communitarianism, Sport and Social Capital: neighbourly insights into Scottish sport,”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38, No.2, pp.139-53, 2003.

[38] 남은영, “한국 중산층의 소비문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4권, 제4호, pp.126-161, 2010.

[39] 류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2007(2003).

저 자 소 개

추 혜 원(Hye-Won Choo)

정회원



- 1995년 2월 :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1999년 2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석사)
 - 2015년 7월 : 영국 레스터대학교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학과(철학박사)
 - 2012년 1월 ~ 현재 : 영국 레스터대학교, 문화적 생산과 소비 리서치 그룹
- <관심분야> : 문화의 생산과 소비(시장, 취향, 그리고 가치의 형성)